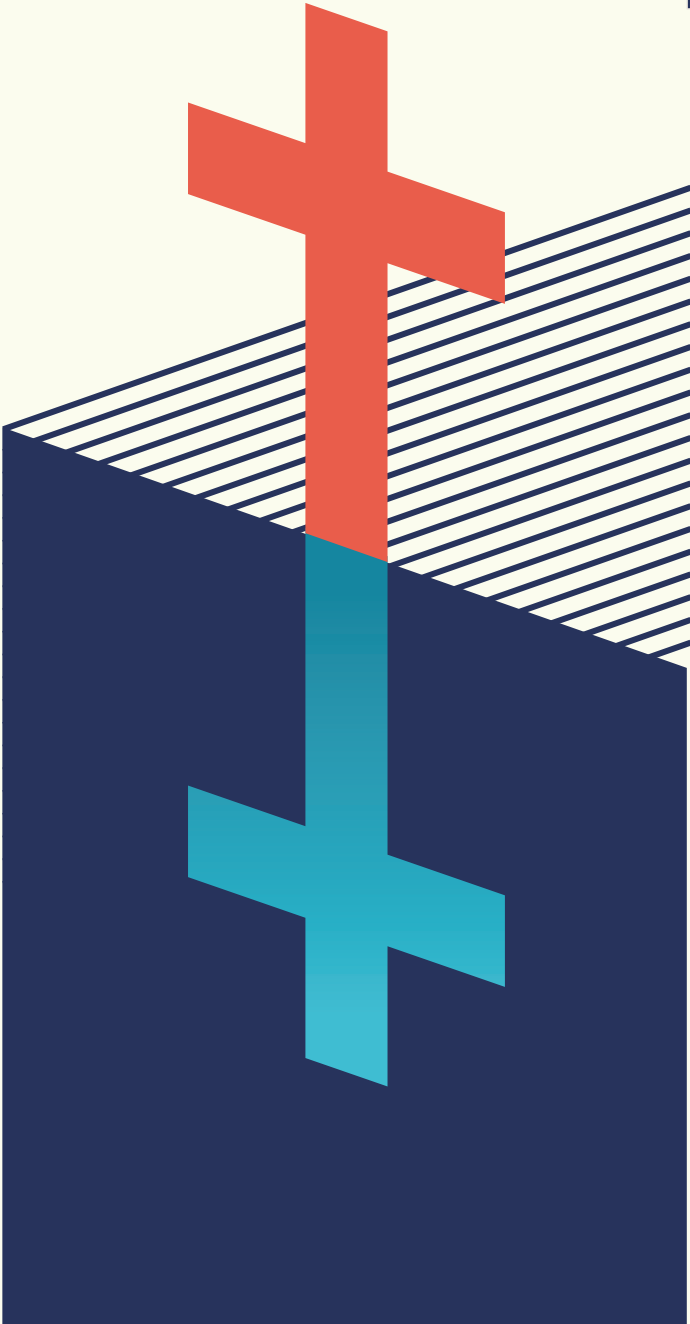


2024년  
4월 14일

로마서 강해  
갈릴리 공과



1. 과거여행을 할 수 있다면 언제로 가고 싶으세요?
2. 긴장될 때 이를 어떻게 해소하는지 같이 나누어봅시다.

## | 찬양 - 세상 흔들리고

1)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2)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 | 대표기도

## 이스라엘은 왜 실패했는가? (롬 9:30-33)

바울은 예수님을 부정하던 자였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자였습니다. 골수 유대 민족주의자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역사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복음이 바울로부터 이방인에게 흘러 갑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동족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거절합니다. 성전, 율법, 할례라는 우주적 특권을 받았지만 성전, 율법, 할례를 주신 하나님의 정신과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롬 9:29).

여기서 바울은 4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은 왜 실패한 것일까? 바꿔 말하면 구원과 관계없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 1. 이방인들, 의를 얻다

**롬 9:30**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를 따르지 않던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 지금 우리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로 들리겠지만 당시 바울에게 이 이야기는 우주의 질서가 재편되는 굉장히 놀라운 신적 사건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면 이방인들은 전혀 의를 얻을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엡 2:11-12**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방인들은 성전도, 율법도, 할례도 없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 언약 밖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죄와 저주 아래 놓여 있어 소망도 없고 구원도 없던 자들입니다. 그런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었을까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고후 5:21**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진 인간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죄 없는 예수님은 인간의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인간의 죄와 저주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의가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작동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엡 2:8-9**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가 선물인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누릴 자격과 조건이 되지 않은 자들에게 주어진 무조건적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은혜를 받은 특별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5000년 역사는 우상의 역사였습니다. 절망과 죽음의 역사였습니다. 이방인 중의 이방인이었습니다. 자격과 조건이 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말씀을 받은 적도 없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법 밖에 있었고 은혜 밖에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전혀 없는데 오직 그 분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롬 3:27-28**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 점검 질문

1.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었을까요?

## 2. 이스라엘, 거침돌 (예수)에 넘어지다

**롬 9:31-32**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칠 돌에 부딪쳤느니라

의를 따르지 않던 이방인들은 의를 얻습니다(롬 9:30). 그런데 의의 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합니다(롬 9:31).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방인은 믿음을 의지하여 의를 얻었고 유대인은 행위를 의지하여 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민족이라는 의미에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하늘의 법도인 율법을 받았습니다. 신적 영광이 가득한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세상 어떤 민족도 이스라엘만큼 축복받은 민족은 없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절합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이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더라” 의의 법을 따랐다는 것은 의를 따른 것이 아니라 조문에 매어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부딪힐 돌에 부딪힌 것입니다. 돌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거침돌에 걸려 넘어졌다는 뜻입니다. 왜 예수는 이스라엘에게 거침돌이 되었을까요?

**(메시지성경) 롬 9:31-32**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에 대해 읽고 이야기하는 일에 그토록 관심 많아 보였던 이스라엘은, 결국 그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것을 놓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 프로젝트에 너무도 푹 빠져 있어서, 그만 바로 눈 앞에 계신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길 한복판에 우뚝 솟은 거대한 바위 같은 그 분을 말입니다. 그들은 그분과 부닥쳤고 큰 대자로 쪽 뺏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관심은 있었지만 생명을 놓쳤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보다는 자기 자신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자기 일에 푹 빠진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수많은 율법 조문을 받았지만 율법의 정신과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조직은 사랑하고 동족은 사랑하지만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심정을 잃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정 밖에 선 그들! 메시아를 거절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죽이기까지 합니다. 도대체 왜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렇게도 미웠던 것일까요? 왜 예수는 유대인들에게 그토록 걸림돌이 된 것일까요?

**첫째, 메시아관이 달랐습니다.** 예수는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온 천지에 왕으로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 분이 오시면 하늘이 갈라지고 사악한 세력들을 진멸하며 심판의 칼을 휘두르며 백마를 타고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라 하는 이 예수는 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와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말 구유에 태어납니다. 나사렛 출신입니다. 마른 땅에서 난 어린 싹처럼 연약하고 비루해 보이기만 합니다.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습니다. 창녀들을 만나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마저 제자들을 보내 묻습니다. “당신이 정말 오리라 한 그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립니까?”. 가롯 유다는 유대교 전통의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려 온 사람입니다. 메시아가 나타나 한 시대를 혁명으로 전복해 주길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만난 예수는 전혀 그런 메시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맘에 들지 않는 그 예수를 팔아 버린 것입니다.

**둘째, 구원관이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힘과 권력을 갖고 역사를 재편할 줄 알았습니다. 메시아는 선과 악의 잣대를 갖고 악인을 심판의 칼로 가차없이 박멸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합니다. 때리면 맞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인간의 죄와 저주를 자기 안에 채우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습니다.

극악 무도한 흉악범에게나 해당될 십자가를 메시아가 짊어졌다는 것이 유대인들은 너무 싫었습니다. 힘 없는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 무기력한 메시아! 그러니 십자가

를 진 메시아 앞에서 그냥 걸려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고전 1:18**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셋째, 구원의 길이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의 행위 하나 하나가 그들에게는 면류관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의에까지 이르지 못합니다.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말은 하지만 그들의 삶의 기준은 더 이상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었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신뢰했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인간의 행위나 어떤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전적인 믿음 뿐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행위와 법을 인정하지 않은 예수가 미웠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만일 사람이 스스로의 선행에 의해 의에 이를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인간이 자기의 선행을 통해 의에 이르는 길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스스로의 선행에 의해 의에 이르는 길을 추구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거침돌이 된 것입니다.

#### 점검 질문

1. 왜 예수는 이스라엘에게 거침돌이 되었을까요?



### 3. 오직 믿음으로

**롬 9:33**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 28:16**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춧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시온에 거침돌이 있었는데 그 거침돌이 어떤 이에게는 시험돌이 되고 어떤 이들에게는 반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침돌은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 거침돌이 어떤 이에게는 거침돌이 되고 또 어떤 이에게는 반석이 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예수라는 거침돌은 반석이 됩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예수는 나의 피할 산성이요, 내가 디디고 설 수 있는 견고한 반석이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항상 예수가 시험 거리요, 예수라는 거침돌에 걸려 넘어지고 맙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팔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예수가 부담이 되는 존재입니까? 예수가 거침돌이 되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 때 도대체 구원이 나에게 어떻게 임했는지 다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엡 2:8-9**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을 가리키는 세 단어가 등장합니다. 은혜, 믿음, 선물입니다. 구원은 자격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주어진 것이기에 은혜입니다. 구원은 값없이, 거저 주신 것이기에 선물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롬 1:16**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열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마귀를 멸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능력으로 가득한 복음은 모든 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자리는 모든 자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믿는 모든 자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롬 1:17**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복음에서 본 또 하나의 세계가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가득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인간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죄의 삯은 사망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에 빠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죄의 삯을 죄인들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에게 담당케 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십니다.

**롬 3:25**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고후 5:21**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의로우신 하나님은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내어 줌으로 공의의 의와 사랑의 의를 실행하셨고 이로써 의롭지 않은 인간은 의로운 인간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롭지 않은 인간을 위해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미칠 수도 있고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미침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은 단 한가지 길 뿐입니다. <믿음>입니다.

**롬 3:22**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방인들은 오직 믿음을 통하여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 도달하려다 보니 자기의 능력, 자기의 의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가 부담이 되십니까? 여전히 직장에서 예수가

거치장스럽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물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수치를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 분은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나를 먹고 마시거라! 나로 너의 살과 피로 삼거라! 그 분은 자격과 조건이 되지 않는 우리에게 조건 없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가 여전히 우리에게 거침돌이 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 예수가 여전히 못마땅한 것은 아닙니까?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강을 건널 때에도 불을 건널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을 것 같아 성령님을 보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 조건과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물질과 자원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늘이 열립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둠에서 빛을 만납니다. 믿음이 있으면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믿음만이 길입니다. 믿음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 점검 질문

1. 예수님이 어떤 이에게는 거침돌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반석이 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2. 바울이 복음에 대해 무엇이라 말했나요?

#### 적용 질문

1.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요?
2. 나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나의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부분은 없나요?

## | 공동체 기도

1. 갈릴리 그리스도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부흥이 있게 하소서.
2.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며, 기도는 사라지지 않음을 믿으며 더욱 기도하게 하소서.
3. 주여! 부흥을 주옵소서.

### 심령부흥집회



- ▶ 기간 : 4월 17일(수) - 19일(금)
- ▶ 시간 : 저녁 7시 30분
- ▶ 장소 : 천안갈릴리교회 본당
- ▶ 강사 : 안호성 목사(물맷돌교회)



#### <Profile>

- SCLA물맷돌 크리스천 리더스 아카데미 교장
- CBS 올포원, CTS 4인 4색 강사
- 한미준 대표 강사
- 저서 :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통일 340)

믿음과 확신

L. M. R. Stead, 1882

보통으로

# 구주 예수 의지함이

Tis so sweet to trust in Jesus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사 119:42)

# 542

TRUST IN JESUS: 8.7.8.7. REF.  
W. J. Kirkpatrick, 1882

1. 구 주 예 수 의 지 함 이 심 히 기 뵈 일 일 세  
 2. 구 주 예 수 의 의 지 함 이 심 심 히 기 뵈 일 일 세  
 3. 구 주 예 수 의 의 지 하 여 심 죄 악 버 어 버 리 네  
 4. 구 주 예 수 의 의 지 하 여 구 원 을 언 언 였 었 네

영 생 허 락 받 았 으 니 의 심 아 주 없 도 다  
 주 를 민 는 나 마 그 의 피 주 에 적 시 네  
 안 위 받 고 영 지 생 함 주 께 모 두 연 였 소  
 원 무 궁 지 나 도 록 주 여 함 께 하 소

후렴  
 예 수 예 수 믿 는 것 은 받 은 증 거 많 도 다

예 수 예 수 귀 한 예 수 믿 음 더 욱 주 소 서 아 멘

쉬운 기타코드(capo=1st) Ab → G Db → C Bb7 → A7 Eb → D

**NOTE.**

